




교사 가이드  
제로 헝거!  
-식량안보 강화하기-

도입 1: 전 세계적 식량 위기

- **2008 글로벌 식량 위기:**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경기 불황이 시작됐으며, 이는 이후 2년간 세계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의 식량 가격 폭등은 저개발국가와 선진국 양쪽 모두에 정치적·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
- **곡물 가격 2~3배 폭등:**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밀과 콩 등 곡물의 가격은 이전보다 2~3배로 치솟았다. 더불어 중국과 인도의 곡물 수요의 증가,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쓰이는 곡물의 양의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 등의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찾아왔다.
- **40여 개국에서 식량 폭동 발생:** 식량가격 폭등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알제리, 멕시코, 필리핀, 아이티,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 치솟은 곡물 가격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지 못한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도입 2: 지구촌, 서로 다른 모습들

- **기아로 굶주린 사람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촌은 과학 기술 발전, 산업 생산력 증대를 통해 엄청난 부와 풍요를 일궈냈지만 지구촌 어딘가에는 아직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 오늘도 세계인구 8억 2000만 명은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적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생산 식량 40억t 중 3분의 1은 해마다 그냥 버려진다. 연간 약 1200조원의 식량이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식량이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는 세상이 도래하였지만 소비자에게 팔리지도 못한 채 유통 과정 중에 폐기되는 식량의 양이 상당하며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려진다.
- **남수단의 식량부족(유니세프) 영상:**  
 <https://youtu.be/4WHkA82e9Hk>



- 왜 아직도 지구촌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 식량안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 1. 식량안보란 무엇일까요?

-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식이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충분한 식량을 물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유엔식량농업기구)
-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 식량안보란 인간 안보의 7가지 구성 요소(경제적 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적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 중 하나로, 국가가 인구 증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끼니를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욕구 충족 행위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 +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중 식량에 대한 인류의 권리: ‘모든 사람은 식량을 포함하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채택)
- + ‘그날그날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 & ‘비상사태에 대비한 식량 위기관리’: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그날그날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식품 소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한 풍요로운 나라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의 문제’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이상기후로 인한 대홍작, 전쟁에 의한 무역 두절 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

SUNHAK PEACE PRIZE

1. 식량안보란 무엇일까요?



- **식량안보:**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이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충분한 식량(물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

## 2. 식량안보는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인류의 오랜 숙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속된 인류의 오랜 숙제이다. 식량 문제는 20세기 이후의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라졌어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전 세계적인 식량 자급률 하락:** 산업혁명 이후 주요 산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지 면적과 인력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식량 수출국에서 수출을 중단했을 때 절대적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SUNHAK PEACE PRIZE

2. 식량안보는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인류의 오랜 숙제
- 전 세계적인 식량 자급률 하락
- 앵플레이션(agriflation)의 공격



-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공격:**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는 긴밀한 상호 관계 아래 움직이며,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로 급속히 전파되며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식량 위기에서 보았듯, 글로벌 경제 위기는 글로벌 식량 위기로 이어져 기아, 소요, 폭동 등 글로벌 안보 위기를 야기한다.

### 3. 현재 지구촌의 식량안보 상황은 어떠할까요?


- **굶주린 채 잠드는 8억 명:** 전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는 8억 2000명이다(유엔 2018년 자료). 이는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매우 심각한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끼니를 때때로 구하기 어렵거나 구하더라도 저질이거나 적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26.4%인 20억 명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 **2015년부터 기아 인구 수 증가:** 지난 수십년 동안 기아 인구 비율은 11%를 밑돌며 서서히 감소되어 왔는데, 2015년부터 기아 인구 수가 반등하여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 기아 인구는 2015년에는 7억 8540만 명, 2016년에는 7억 9650만 명, 2017년에는 8억 1170만 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데, 경제 불황과 불평등이 그 원인이다.
- **취약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는 영양결핍 인구가 전체의 22.8%에 달한다. 아시아는 지난 10여년 간 영양실조 인구가 꾸준히 줄어왔지만 아직도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11.3%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와 함께 심각한 기아 문제를 겪고 있다.
- **아동은 식량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장기 아동들이다.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아동 1억 4400만 명이 발육 부진 상태다. 주로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사는 이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더불어 말라리아나 에이즈, 전쟁의 위협까지 떠안으며 식량 문제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다.



### (문제 의식 확인 -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 **식량안보와 불평등:** 식량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식량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기술 혁신으로 일부 국가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낙후지역에서 기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지구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가 보장되지 못하면 지역 분쟁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구촌 모두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 **식량안보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ZLvzfV5sxo>

#### 4. 식량 위기는 왜 발생하였을까요?(수요 측면)

-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 세계인구는 1960년대 30억 명을 넘어섰고, 이때부터 매 10년마다 약 10억 명씩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현재 78억 명을 돌파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에서 식량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이기도 하다.
- **육류 소비량 증가:** 고기, 유제품이 주는 맛과 즐거움에 빠진 지구촌은 엄청나게 많은 육류를 소비하고 있다. 육류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소고기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소를 더 빠르고 튼튼하게 사육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소비하고 있다. 소의 사육 면적은 전 세계 토지의 24%를 차지하는데, 1ha의 땅에 벼를 심으면 20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같은 크기의 땅에 소를 키우면 0.3명분의 식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 육류 소비량의 증가는 곡물 수요로 이어진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7~8kg의 곡물이 필요하며,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전 세계 곡물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밀·옥수수·감자·보리 등 주로 녹말작물을 발효시켜 차량 등의 연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연료다. 화석연료와 달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식물로부터 연료를 얻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중형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옥수수 양이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바이오에탄올로 공급되다 보면 식량으로 공급되는 옥수수의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바이오에탄올의 연료로 옥수수가 대량 사용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올랐고,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는 중남미 국가에서 식량 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버려지는 음식들:**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 중 대략 절반 정도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식탁에 올라오지도 못한 채 경작지에서 시장이나 마트로 운반되는 도중에 버려진다. 대형마트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약간 시들거나 작은 흠집만 생겨도 버려지는 식량들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은 보통 자신이 구매한 식량의 20~30%를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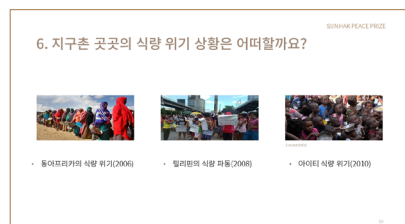
## 5. 식량 위기는 왜 발생하였을까요?(공급 측면)

- 기상이변과 물 부족:** 지난 100여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약 1°C 상승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화석연료의 사용이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야기했는데, 현재처럼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금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약 6.4°C 상승하게 된다. 6°C 이상 상승하게 되면 자연재해는 일상화되며, 지구상 생물의 대부분은 멸종하게 된다. 기후에 의존하는 농업의 특성상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농작물 재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잦아진 홍수와 가뭄, 거대해진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경작지 감소:** 1인당 식량 경작지 면적은 70년대 0.38ha에서 21세기 0.23ha로 감소하였고, 2050년 0.15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생산량은 늘어나야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 경작지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UN forecast)
- 세계 대형 곡물 기업들의 독과점:** 소수의 대형 곡물 기업들이 식량 시장을 통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농작물 가격을 조정하면, 경제력이 없는 이들은 식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전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몇 개 국가에 그치며, 그중 밀가루의 가공과 유통은 미국의 4대 곡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대형 곡물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면 구매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식량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 6. 지구촌 곳곳의 식량 위기 상황은 어떠할까요?

- 동아프리카의 식량 위기(2006):** 2006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라 불리는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속한 북동부 지역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났다.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줄자 곡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 필리핀의 식량 파동(2008):**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 중 하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쌀 수출국들이 자국 내 쌀 재고 부족을 염려해 쌀 수출을 중단하면서 필리핀의 쌀값은 50% 가량 폭등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일반미의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정부미를 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M16 소총을 멘 군인들이 쌀가게를 지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2008년 세계 주요 쌀 수출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난을 우려해 쌀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면서 쌀값이 2007년에 비해서는 2배, 2001년과 비교해서는 5배까지 올랐었다.



- **아이티 식량 위기(2010):** 아이티에 2010년 1월, 리히터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22만여 명의 사망자와 30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이티는 지진으로 인해 식량위기가 고조되었고, 소금과 버터를 넣고 진흙을 반죽해 넓게 펴 말린 진흙 쿠키를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도되어 지구촌을 충격에 빠트렸다.

## 7.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국제사회의 목표)


- **기아 인구를 50% 줄이자! -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로마 선언:** 199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 식량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전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대응과 미래 식량안보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계 식량안보에 관한 로마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인류 전체를 위한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는 인구를 반감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30까지 지구상에서 빈곤퇴치! - 유엔 SDGs:**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을 비롯해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가지 공동목표이다. 빈곤퇴치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유엔은 2030년까지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절대 빈곤의 인구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국제기구)

- **식량의 생산과 분배를 촉진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모든 인류의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의 향상과 식량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을 위해 1946년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전 세계 각국의 영양 상태,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판단과 보급이며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한 국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난한 나라에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
- **최대의 식량 지원 단체인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계획은 세계 식량안보와 빈곤국의 농업 개발 문제, 식량 개발에 관한 정책 토의, 식량 원조 모금, 개발도상국의 식량 지급 정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다. 매년 전 세계 83개국 1억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아 인구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제로 헝거’ 목표 아래 활동 중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농업 생산성을 키우는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은 농업의 발전이 빈곤 감소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공감 아래 2010년 설립된 국제기금과 그 운용단체다. 이 기금은 전 세계 빈곤층의 약 75%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소득 국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분야의 진입장벽 축소, 농촌생활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스페인 및 빌게이츠 재단이 총 8억 8천만 달러를 출연하여 2010년 출범하였다.
- **제로 헝거 영상 시청:**  
 <https://youtu.be/cHz0jPs5KQ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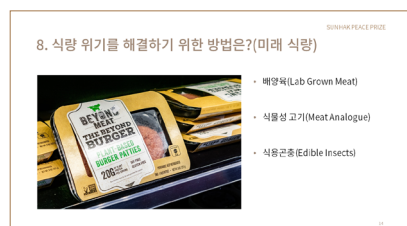
## 7.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국가)

- **식량 자급률 증대:** 한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만약 우리나라에 식량을 오랫동안 대량으로 수출해온 나라가 갑자기 식량 수출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경제는 연쇄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모든 국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이상의 농지 확보와 관개, 제방 시설을 통한 수자원 관리 등 식량 자급률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우선 지원:** 각국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보장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 공정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가장 가난한 20억 인구의 구매력이 향상되며,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농장과 시장을 잇는 직거래 활성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장과 시장을 잇는 직거래 공급망이 확충된다면 저비용 고품질의 식량 공급이 쉬워진다. 국가는 시장과 농촌 지역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도로, 창고 및 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민들이 보다 넓은 소비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8.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미래 식량)

- **배양육(Lab Grown Meat):** 배양육은 고기 근육세포를 무한증식시켜 얻은 육류를 말한다. 고기, 우유 및 가축을 배양육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3년 기술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햄버거 패티 하나의 가격이



3억 4천만원 가량이었으나, 2020년경에는 약 500g에 3천~5천 원 정도로 하락되었다.

- **식물성 고기(Meat Analogue):** 두부를 이용하여 고기를 만들 수 있다. 최근 관련 기술의 발달은 식물성 고기가 저작감, 식감, 향미에서 소고기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 **식용곤충(Edible Insects):** 식용곤충은 생산성도 높고, 고품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량 대안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늘고 있다. 번데기나 굼벵이 등의 유충이 식용곤충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 8.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농업 신기술)

- **수직농장(Vertical Farm):** 수직농장이란 도심 고층건물을 일종의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농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온도, 습도, 빛, 농업용수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연중생산이 가능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생산량 증대와 안정적인 공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건물에서 식물을 다층으로 재배하면 같은 재배면적 대비 10배 정도 농장의 토지활용도를 갖춰 농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농장(Urban Agriculture):** 도시농장이란 도시 유휴지, 건물 옥상 및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채 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성이 없는 도시인을 위해 로봇 농업이 적용되기도 한다. 도시 농장은 도시인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야채 소비를 증가시키고 야채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디지털 농업(Digital Agriculture):** 디지털 농업이란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위성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접근을 의미한다. 드론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재배종목과 상황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농작물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농약을 배포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으로 더 적은 물과 더 적은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은 더 줄이면서 더 높은 가격의 농작물을 만들 수 있다.



## 9. 식량안보를 위해 힘쓴 사람들

- **모다두구 비제이 굽타:** 저개발국가에 물고기 양식기술을 보급하여 동남아시아 기아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인도의 생물학자(1939~). 그는 전쟁터와 극빈곤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 맞춤형 양식 기술을 연구하였으며, 물고기 유전학 연구를 선도하여 어류 생산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한 물고기 유전학계의 세계





적 권위자이다. 2005년 세계식량상을, 2015년에는 제1회 선학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프리카 농업을 혁신하여 대륙 전역에서 수 억 명의 식량안보를 개선한 나이지리아 농업경제학자(1960~). 가난한 농부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E-WALLET 시스템’(농부들에게 비료 구입을 위한 전자 바우처를 보내줌으로써, 중간 유통업자가 취하던 폭리를 끊어내고 농부들의 식량 생산량 증가를 가능하게 함)과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각국의 은행 및 국제 NGO 들과 협업하여 아프리카 빈농들에게 농업 자금을 대출해줌)을 만들었다. 2019년 제3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아킨우미 아데시나 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Eer1Pmon\\_AM](https://www.youtube.com/watch?v=Eer1Pmon_AM)

(브레인 스토밍 - 함께 생각해 보아요.)

-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자유롭게 공유 하도록 한다.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컬 푸드 이용하기, 대형마트보다 지역 시장 이용하기, 공정무역 식품 이용하기, 고기 소비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기, 세계 식량 위기에 꾸준히 관심 갖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기 등

